불교문화로 가을 장엄할 '문화대전' 열린다

조계종 문화부, '2022 불교문화대전' 개최

10월 19~26일 '불교문화주간'
전국 사찰서 다양한 문화행사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이벤트
불미전서 종정예하 작품 선봬
"일상 회복 · 치유의 장 될 것"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12일 열린 간담회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탄원 스님이 '2022 불교문화대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불교 음악, 미술, 출판, 문학 등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불교문화주간 행사가 마련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탄원)는 10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던 불교 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해 '2022 불교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 불교문화대전'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간을 '불교문화주간'으로 선포하고 음악 · 미술 · 출판 ·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를 전국 사찰과 불교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불교문화대전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여서 의미를 더한다.

'2022 불교문화대전'의 시작은 10월 19일 오후 3시30분 조계사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 아라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불교미술대전 오프닝 행사가 알린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은 작가들의 기획 전시로 진행되며, 옻칠 작가로도 잘 알려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새로운 작품 2점이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성효 스님, 송천 스님 등 작가 32명이 조각, 회화, 공예 등 총 43점의 작품을 선뵌다.

이후 8일 동안 전국 사찰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이어진다. 10월 20일 오전 11시 조계사에서 문화공연(김희진, 파스텔걸스, 브라스밴드)과 오후 4시 환경콘서트(천도 스님, 라마)가 열리며, 21일 오후 3시 남양주 봉선사에서 문화공연(신성, 권미희, 인풍류)이 진행된다. 22일에는 서울 금선사와 정읍 보림사에서 각각 산사문화예술제가 개최되며, 23일 오전 10시 해군교육사령부에서는 문화공연(설하윤, 오로라)이, 25일 오후 1시 당진 영탑사에서는 음악공연(가릉빈가 소리)이 열릴 예정이다.

'올해의 불서10'에 선정된 작가들과의 북콘서트도 눈길을 끈다. 10월 21일 오후 1시 수국사를 시작으로 △서울 연화사(23일 오후 2시) △서울 학도암(24일 오후 12시 30분) △종로 노인복지관(24일 오후 3시) △전국비구니회관(25일 오후 1시)에서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2022 불교문화대전'의 대미는 폐막식과 함께 통합돼 진행되는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출판문화상, 불교음악상 시상식이 장식한다. 불교언론문화상과 불교출판문화상, 불교음악상이 통합돼 시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조계종 문화부는 주요 본사와 개산대재들과 연계하는 등 '불교문화대전'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장 탄원 스님은 "'2022 불교문화대전'은 3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국민과 불자들의 일상 회복과 심신 치유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전국 본사와 사찰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 불교문화대전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종교구장 후보에 능원 스님 추천



조계종 6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자로 능원 스님〈사진〉이 추천됐다. 군종특별교구는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2022년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6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자로 現교구장 직무대행이자 수석부교구장인 능원 스님을 추천했다.

능원 스님은 1985년 영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선학과 졸업 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육군 군법사로 복무했으며, 해인사, 직지사, 수덕사, 수도암, 칠불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능원 스님은 진주 보광사 주지, 남해 보리암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3월부터 군종교구 부교구장으로 활동했다.

능원 스님은 이날 후보 추천에 대해 "종단과 군승법사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종특별교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1차 상임위 회의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군종교구장 직무대행 능원 스님, 부교구장 법원 스님 등 상임위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상주 교수들, 소그룹 맞춤교육 논의

조계종 교육원, 10월 12일
연찬회서 교수법 등 논의

출가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그룹 맞춤 승가교육을 위한 교수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직무대행 서봉)은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21세기 소그룹 중심 맞춤교육 방법론 찾기'를 주제로 상주교수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직무대행 보일 스님이 '소그룹 중심의 학인 지도법-해인사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제했으며, 하오선 동국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이 '소그룹 학인 맞춤 수업 방법론'을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보일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 △호스피스병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탁실라 프로젝트 △편잡아트(FUN雜ART) 프로젝트 △AI부디즘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승가교육이 '받는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님은 "'하는 수업'은 공부한 내용을 다양한 문맥과 상황에서 직접 실천해보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이는 불교 전통과도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개성과 근기를 지닌 학인들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존중, 협동심 등이 함양될 수 있다. 이는 학인 개인의 자산이 될 뿐 아니라 승가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힘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연찬회에서는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문연구원 선암 스님이 신편 치문 편찬 보고를 진행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은 "수년 전부터 출가자가 급격히 감소해 가고 있고, 공공연하게 기본교육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는 등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소그룹 중심 학인 지도법이나 맞춤수업 강의법을 통해 학인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론을 찾는다면 사찰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이 새로운 불교학의 요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10월 12일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상주교수 연찬회에 참가한 상주교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통사찰 보수 자부담 철폐 · 문화재 환수 '쟁점'

21대 국회 국정감사로 본 불교정책 향방

10월 12일 문화재청 감사서
"자부담 비례원칙 역행"지적
최응천 청장, "긍정적 검토"
도난문화재 예산 확충 요구
'금동관음입상' 환수 촉구도

21대 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시 자부담 철폐와 도난문화재 정책 강화,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 방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전통사찰 보수시 자부담이 명확한 근거 없이 20%로 책정된데 따른 부당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는 10월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통사찰 보수시 자부율 문제에 대해 질의한데 이어,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수사인력 및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또 배현진 의원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에 대한 조속추진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백제금동보살관음입상'을 비롯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개호 의원은 전통사찰 보수시 20%의 자부담율이 책정되는 문제에 대해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부담율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은 전액 국비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반면, 문화재를 보유하지 않은 전통사찰의 경우 보수예산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전통사찰 자부담금 철폐에 대한 검토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화재청도 함께 협조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전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으로 현재 200만원으로 책정된 '신고 포상금' 예산을 확충하고 문화재 관련 전담수사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 관련 수사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며, 연구소를 포함해 최대 7명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도난문화재 회수율은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조선왕조실록 · 의궤가 일제강점기 불법반출된 후 정부와 민간, 조계종과 월정사의 노력으로 환수됐지만 오대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며 "지난 2월 88명의 여 · 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실록 · 의궤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월정사가 기부채납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번 달 채납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직제 절차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반영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립조선왕조실록 · 의궤전시관을 개편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반출돼 현재 일본인이 소장 중인 '백제금동보살관음입상'과 관련, 문화재 반환을 위해 매입기금 상한액을 제한한 응찰상한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체위원장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핵심은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을 더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도 "소유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넘긴다면 추후에 환수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0·27법난 제42주년 추념문화제

지난 1980년 10월 27일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개 사찰을 군홧발로 짓밟고, 2천여명의 스님과 불교관계자들을 연행하여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 된지 어느덧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공권력에 의한 탄압과 인권침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10.27법난' 제42주년 추념문화제를 개최합니다.

10·27법난 제42주년 추념문화제

2022. 10. 27(목)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

문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